생명 살리는 교회
예수 따르는 성도



준비부터 드리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6월 청소년부 예배_최은총, 김예주, 김하람, 이세린, 안나현)

주일 예배 순서

묵도와 부름		인도: 최은총 전도사, 이성은 성도
사도신경		
찬 양	세상 어디에도 의가 없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인도자+찬양팀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열왕기하 5:1-15	안나현/다함께 기립
설 교	요단강 일곱 번	오종향 목사
결단의 침묵		
찬송과 기도	나의 죄를 씻기는 주님 말씀하시면	
헌 금		
안 내		
축 도		
점심 친교		
조 모 임		*방문자/새가족은 오종향 목사와 함께

오늘의 말씀

대표 낭독자: 안나현 (다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열왕기하 5 :1–15 (우리말성경)

열왕기하 5장
1.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에 승리를 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2.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 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3.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나아만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 아이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5. 아람 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주겠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옷 열 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6. 나아만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줄 편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 보시고 왕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9.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10.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오.”
11.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아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12.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13.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14.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15. 그러자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설교 아웃라인 〈요단강 일곱 번〉

열왕기하 5:1 - 15 ·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2주 ·
낮아짐을 통과하는 믿음 큰 강이 아니라 작은 강,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 **도입** — 나아만의 화려한 이력서를 뒤집은 한 글자: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1절)

궁극의 인사이더가 사실은 시한부 _____였다
그가 기대한 것: _____한 의식
돌아온 답: 시시한 처방. 깨끗함은 강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낮아짐에서 온다.

① 특별한 해법을 기대한 사람 (1 - 9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3절)
· 하나님의 구원은 큰 사람의 큰 계획이 아니라, _____ 사람의 작은 한 마디로 시작된다
· 큰 사람일수록 작은 순종이 어렵다 — 가진 것으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② 분노하고 돌아서려는 자존심 (10 - 12절)
"내 _____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11절)
· "왜 하필 요단강인가"는 "왜 하필 내 방식이 아닌가"다
· 하늘의 편지를 반송한다 — 마음에 기대한 봉투가 아니라는 이유로
·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 물이 아니라 _____ 이었다

③ 종들의 말에 멈춘 발걸음 (13절)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13절)
· 나아만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_____ 일을 못 하는 사람이었다
·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_____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

④ 일곱 번 만에 어린아이 살같이 (14 - 15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14절)
· 순종의 가장 어려운 구간은 첫걸음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_____이다
· 어린아이의 살 — 부활의 새 몸, 새 창조의 예고편
· 들어간 것은 아람의 장군, 나온 것은 여호와의 예배자

- **그리스도** — 같은 강, 다른 한 사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막 1:9)
· 나아만은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그리스도는 _____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내려가셨다
·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가시고 _____ 로 다시 올라오신 그분이, 어린아이 살 같은 새 생명을 입히셨다
· 우리는 깨끗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해졌기 때문에 _____한다

나에게, 너무 평범해보이는 요단강 일곱번은 무엇인가?

소그룹 나눔(예배 후 함께)

2026. 7. 12 · 요단강 일곱 번 (왕하 5:1 - 15)

마음 열기
최근에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싶었던 작은 일이 있다면 하나만 나눠 봅시다.

1. 발견 —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한 이방 장군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무엇을 사용하십니까(3절, 13절)? 자격도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원수까지 씻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까?

2. 감사 — 내 인생의 요단강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 각본과 다르게, 그러나 더 좋게 일해 오셨습니다. 시시해 보이는 작은 것 — 한 사람의 말, 한 구절의 말씀, 작은 습관, 우연 같은 만남 — 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신 은혜의 순간을 나누고, 함께 감사합시다.

3. 응답 —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해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로, 이번 주 기쁨으로 반복할 '작은 순종' 하나를 정해 봅시다. (7월 25일 쪽방촌 도시락 나눔도 우리 조의 감사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응답을 축복하며 둘씩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 값없이 씻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 작은 사람과 작은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 깨끗하게 된 사람답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한 주

(설교 후 확인) 설교 아웃라인 빈칸 정답
생각 / 말씀 / 쉬운 / 없음 / 중간 / 우리 / 부활 / 순종

오늘의 섬김과 봉사

예배 안내

- 이번 주일: 옥진복, 손이숙
- 다음 주일: 배지은 유은희

성경봉독

- 이번 주일: 안나현
- 다음 주일: 이세린

청소정리

- 이번 주일: 동행 조
  (최은총 김예주 김하람 박윤준 신정혜 안나현 이세린)
- 다음 주일: 휴 조
  (은원철 박태원 이성은 조영준 이위직 허준)

후원 선교사님 근황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웹판에는 근황을 싣지 않습니다.

김남진/김성은 (영국기도선교)

- 12차 기도선교가 7/6-7/17 잉글랜드 지역에서
  10개 기도팀이 참여하여 진행

임일혁/송경남 (몬트리올 이주자 사역)

- 9/23부터 한국 방문 예정

교회 소식

주일 안내

-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예배 후 점심 함께하는 교제시간이 있습니다.
- 소그룹모임이 예배후에 있습니다.
- 오늘 점심 메뉴는 닭고기 카레와 찐 감자입니다. 강원도에서 온 맛있는 감자를 손이숙 집사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7월의 말씀

- 7월 예배 주제는 "뜨거운 여름, 상쾌한 복음!"입니다.
- 7월 주일예배 주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 7월 금요기도회 주제는 〈〈더위를 식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뉴시티 이모저모

- 찬양 악보는 소량 배치합니다. 화면 가사를 보며 가슴을 열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

7-8월 일정

-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회: 7/5 주일 10시
- 재정팀 정기모임: 7/5 주일 2:30
- 담임목사님 외부 수련회 인도: 7/11-12 다니엘새시대교회, 횡성
- 찬양팀 음향 조율: 7/19 주일 2:30
- 소그룹 조장 모임: 7/25 토요일 12시
- 초등부 여름 나들이: 7/28 화요일
- 유치부 물놀이: 8/1 토요일
- 청소년부 수련회: 8/3~4 (월요일~화요일)
- 제직회 정기 모임: 8/30 주일 1:15

주일학교 안내

유치부

- 8월 1일(토) 여름 물놀이를 다녀옵니다.
- 최은총 전도사, 유은희 집사,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 유치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유치부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15-12:00
- 오늘의 말씀: 천국의 꿈

초등부

- 7월 28일(화) 여름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초등부 여름 나들이는 오종향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 초등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예수마당〉 : 자존감_VIP 양육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 8월 3일(월)~4일(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4일에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합니다.
- 청소년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주일 오후 1시,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10과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 순서

저녁 7:30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가장 높은 곳에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최은총 전도사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요나 2:1-2, 9-10	다함께 기립
설 교	더위를 식히는 하나님의 사랑 ⑶ 바다 밑바닥	오종향 목사
찬양과 기도		
축 도		
개인 기도 후 귀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
행복한 제직회 · 2026년 하반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분들입니다.
궁금한 것, 제안하고 싶은 것,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각 팀장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6년 제직 명단

제직의 임기는 1년입니다. 내년 제직은 연임과 신임으로 세워집니다.

- 권사: 김영혜, 옥진복, 정민재
- 집사: 강자은,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혜영, 노영숙, 문영식, 박태원, 배지은, 손이숙, 우문주, 원종욱, 유은희, 은원철, 이수민

함께 섬기는 봉사자

제직은 아니지만 귀한 몸과 시간으로 교회를 함께 세우는 분들입니다.

- 김화길 (청소년부 지원)
- 박민수 (예배 안내), 윤재연 (예배 안내)
- 이성은 (찬양팀 찬양 인도)

섬김의 팀

- 환경개선팀 (팀장 강자은 · 김영혜, 우문주) 예배당과 교회 공간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내부 데코, 화분과 식물 돌봄 등

- 구제전도팀 (팀장 원종욱 · 김영혜, 손이숙, 옥진복, 정민재) 가을 새가족 초청집회를 준비하고, 연말에는 주민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의 말씀과 선물을 전합니다.

- 새가족안내팀 (팀장 유은희 · 배지은, 이수민) 주일마다 예배당 입구에서 환영하고, 새가족이 오시면 자리와 식사를 함께하며 섬깁니다.

- 재정팀 (팀장 김재강 · 은원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분기, 연간마다 보고합니다.

- 찬양팀 (팀장 김성배 · 노영숙, 문영식, 은원철, 이성은)
  찬양, 음향, 방송 송출, 미디어를 맡습니다.

- 자비사역팀 (팀장 김혜영 · 김순영, 김현지, 박태원)
  유니시드(탈북자 지원, 도시락 나눔), 시선오브·꽃피는 봄날
  (자립준비청년), 쪽방촌(주거불안가정) 등 이웃을 찾아가 섬깁니다.

- 앞으로 세워질 팀: 중보기도팀, 독서클럽팀, 다음세대교육팀,
  소셜미디어팀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팀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함께 시작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예배 안내위원

- 첫째 주: 윤재연, 이수민
- 둘째 주: 옥진복, 손이숙
- 셋째 주: 배지은, 유은희
- 넷째 주: 박민수
- 다섯째 주: 지원 요망

주일학교 섬김

- 유은희 (유치부 교사)
- 김화길 (청소년부 지원)

소그룹 조장

-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김순영, 김현지, 유은희 조장은 새로운 조가 만들어질 때를 준비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작은 일, 크신 주님

이번 주일 우리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람의 대장군을 살린 사람들의 명단에 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옷을 찢었고, 국서는 오해를 낳았고, 은금은 되돌아갔습니다. 길을 연 것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어린 계집종이었고, 돌아서는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이름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을 고치실 때, 작은 사람들의 입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작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크기 순서로 줄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구원은 늘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열여덟에 홀로 세상에 나서는 보호종료청년들. 낯선 땅에 뿌리내리는 탈북가정과 그 자녀들. 서울역 앞 쪽방촌의 노인들과 아이들. 세상이 지나치는 이 작은 이들이, 성경의 문법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마 25:40).

그래서 한 걸음을 제안합니다. 오는 7월 25일(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니시드와 함께 서울역 앞 쪽방촌 이웃에게 도시락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니시드는 북한배경이주민과 남한의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도시락 나눔 사역을 하는 단체인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동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북한식 식사로 함께 시작하고(12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휴먼북 시간을 가진 뒤(1시), 도시락을 만들어(2시), 쪽방촌으로 직접 전달합니다(4시).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도시락 하나를 싸고, 골목 하나를 걷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한 것은 큰 강이 아니라 작은 강이었고,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토요일 오후가 누군가에게는 요단강 일곱 번 중의 한 번이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구제팀 김혜영 집사님이나 각 조 조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함께 가기 원합니다. 모이는 곳은 소망을 찾는이 교회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70 (후암동), 숙대입구역 도보 5분)입니다.

–오종향 목사 드림